



경상지역
왕버들

나쁜 기운 물리치는 구렁이 사는 왕버들

		
지정번호	영천-11-20-13	경북 영천시 대창면
지정년도	1982	대창리 1076-153
관리기관	영천	35° 53' 04.27" N
수령	310년	128° 53' 30.49" E
수고	15m	
흉고둘레	6m	

신령한 나무로 여기는 보호수(영천-11-20-13) 왕버들은 작물을 가꾸는 밭과 과수원(복숭아) 주변의 길가에 자라고 있다. 왕버들의 나이는 3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5m, 가슴높이둘레는 600cm, 밑동둘레는 845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6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3.5m 정도에서 몇 갈래로 갈라졌으며, 다시 여러 갈래의 가지 줄기를 내어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줄기 밑동의 나무껍질은 나사모양으로 돌아가는 모양이며, 높이 3.5m 정도까지 충전재(폴리우레탄 수지)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주변은 넓은 공터이고 정자가 있으며, 긴 의자가 놓여 있다. 지방도로 경계로 개울의 물도랑이 인접하고 있다. 또한 보호수라는 글자만이 아니라 '산림유전자원 보호수'라는 표지판이 이채롭고, 무속 행위 금지의 경고판도 세워져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뱀과 관련이 있다. 오래 살고 있는 고목의 왕버들은 물가에 자라면서

줄기가 잘 썩기 때문에 커다란 동공(구멍이 뚫려 있는 빈 공간)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왕버들의 구멍은 예로부터 도깨비 이야기를 비롯하여 구렁이, 이무기가 살고 있는 전설을 만들어내었다. 마을 주민들은 나무 줄기 또는 줄기의 빈 공간에 큰 구렁이가 살고 있다고 믿었다. 구렁이는 자주 출몰하지 않고, 1년에 두 번 정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습을 드러내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 구렁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물리쳐서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거의 10년마다 잊을만하면 황새가 날아와 이 왕버들에 집을 짓고 4~5년 동안 서식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왕버들은 마을에서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동제(洞祭)를 지내는 당산나무(당산목)이며, 신목이다. 한편, 왕버들은 한자로 귀신이 사는 버들이란 뜻의 '귀류(鬼柳)'이며, 개울 옆에 잘 자란다고 하여 '하류(河柳)'라 부르기도 한다.